

광주·전남 시민운동의 대부, 김병균 목사 별세

농촌목회·교회 인권 등 매진 민주화·통일운동 몸소 실천



민주쟁취광주전남운동본부 대부,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공동의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시민운동에 헌신했던 김병균(사진) 목사가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병균목사장례위원회는 “광주전남 시민운동의 대부” 김병균 목사가 지난 30일 밤 11시께 광주 기독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별세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장례위원회는 “김 목사님은 지난 3월 1일 오전 나주의 독립투사 김철 선생 묘소에서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고려인마을 3·1절 행사를 마친 뒤 폐렴 증세로 입원했다”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해오다 지난 30일 밤 급격한 병세 악화로 숨을 거두셨다”고 밝혔다.

1948년 강진군에서 태어난 김 목사는 강진 중앙초등학교와 광주서중을 졸업했다. 호남신학대학

교를 거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갈릴리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를 받았다.

지난 1978년부터 장성 양유교회를 시작으로 장흥, 신안, 나주 등지에서 40여 년간 농촌목회 활동을 해왔다. 예장 통합 전남노회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예장농촌목회자협의회 회장, 광주전남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장, 광주기독교협의회장(광주NCC)을 역임했다.

김 목사는 농촌목회와 교회 인권 등에 매진하면서 활발한 사회활동, 시민 활동을 펼쳤다. 1995년 11월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실행위원으

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97년 5월에는 정권 규탄 시위 중 사망한 조선대 류재을 군에 대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광주공항 페트리어트 미사일 철거 투쟁을 벌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장현권 광주 서정교회 담임목사는 “김 목사님은 평생 약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목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민주와 인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으로는 부인 진보에 씨, 자녀 경운, 유리, 유진 씨가 있다. 빈소는 광산구 만평장제식장이며 발인은 3일 오전 8시. 오전 10시에는 5·18민주광장에서 노제를 올리며 장지는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공원묘지 제3묘역(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재단 전남본부, 광양시가족센터에 후원금 1600만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 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는 최근 2023년 어린이재단 지역밀착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양시가족센터(센터장 손경화)와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광양시가족센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총 1600만 원의 후원금은 다문화가정 아동 및 놀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놀이체험단 구성 및 ‘신나는 놀이터’ 등 놀이공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김유성 본부장은 “아동의 성장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협력해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월례세미나 개최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운영위원장 기광서 조선대 교수)은 최근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 추진 사례와 광주전남 추진사업 제안”을 주제로 제10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시기 지역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광주·전남의 지역정책성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오병기 선임연구위원(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사례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추진 동향을 분석한 후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문화유산 보호법 제정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정체성에 기반한 △경제·산업분야 △농·수산·해양분야 △문화·관광분야에 대

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하며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남북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희송(전남대) 교수와 최금미(애드루인재개발연구소)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는광교회,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 전달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우리는광교회(담임목사 김수천)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성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수천 우리는광교회 담임목사, 전영숙 권사, 김철희 안수집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아 육이아(재)	30 930 MBC 뉴스 55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55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10]	00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1]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오아시스(재)	20 헬로키즈 공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이 맛에 산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최강 1교시(재)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뽀뽀뽀 좋아좋아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팔도밥상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췌미(재)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일꾼의 탄생(재)	55 5 MBC 뉴스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글로벌 도내이선쇼 W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비밀의 여자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아 육이아	30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오아시스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55 더 라이브		3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꽃선비 열애사
[11]	30 KBS 뉴스라인	00 개는 훌륭하다		1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2]	10 다큐 인사이트(재)	40 아이 러브 스포츠	10 스포츠 매거진 5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40 마이 로컬 텔레비전 베스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호기심딱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0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그와 블랙캣
07:00 빅 블루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순간 포착, 야생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인간과 바다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3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봄, 남해에서 하동까지 1부 남해 탈게 가족의 봄>
08:50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지스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5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퍼 피그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음운2월 13일 辛卯) ☎ 010-9790-8237

36년생 동반하는 국세에 활로가 보인다. 48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쾌거가 있다. 60년생 입장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반목이 보인다. 72년생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84년생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밤샘해서도 아니 된다. 96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35, 73

37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49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면 무의미하다. 61년생 드나드는 것에 각별히 주의함을 요한다. 73년생 예전과 같지 않으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라. 85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97년생 까지 판국에서 진짜가 파묻히는 애석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7, 65

38년생 이렇 수도 없고 저렇 수도 없을 것이다. 50년생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니 기대할 만하다. 62년생 너무 가까이 하면 때가 물을 수도 있으니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라. 74년생 생 머지않아서 작나라하게 드러나리라. 86년생 일의 선후를 정한 다음에 중점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 98년생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3, 67

39년생 반복되면서 쉴 틈을 주지 않는다. 51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63년생 타인의 실행 방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자기 한계의 징표임을 알게 되리라. 75년생 생각함으로써 생기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느니라. 87년생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속출한다. 99년생 과잉행사는 돌발 상황을 예고한다. 행운의 숫자 : 25, 80

40년생 일체의 기준 가치관을 뒤엎는 커다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52년생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뜻 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 64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충실해야겠다. 76년생 원리를 잘 응용할 줄 아는 삶의 지혜가 요망된다. 88년생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실행하라. 00년생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1, 99

41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딜 것이다. 53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65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77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89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01년생 정도만 걸으면 아무런 하자도 없다. 행운의 숫자 : 15, 62

42년생 안벽을 꺾려다가 오히려 명정을 드러낼 수 있느니라. 54년생 일시적으로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느니라. 66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아. 78년생 기준과 체계가 서야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다. 90년생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 02년생 진실을 가장한 것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7, 54

43년생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55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싸여야 하는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67년생 많은 것을 주고 받게 될 것이다. 79년생 어떠한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고 참고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 91년생 임시적인 상황일 뿐이다. 03년생 급히 선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5, 63

4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할 때다. 56년생 자신감부터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68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정도로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리라. 80년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보이나 방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 92년생 자신이 행한 만큼에 비해할 것이다. 04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6, 75

45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57년생 현태대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69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81년생 경사스러운 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다. 93년생 타인에게 비치는 걸 모습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05년생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비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3, 61

34년생 오늘날 날이 아니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46년생 코스를 이탈하면 고생길만 환할 뿐이다. 58년생 용기 있는 이만이 행운을 잡는 법이다. 70년생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82년생 현상 유지하는 데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94년생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만 착각한다면 많은 것을 잃게 됨을 잊지 말라. 행운의 숫자 : 34, 89

35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 뒤따라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47년생 일장춘몽이나 참으로 허무하게 그치지 않겠다. 59년생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71년생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영광스러움도 안게 되리라. 83년생 방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95년생 한 순간에 절호의 찬스가 지나간다. 행운의 숫자 : 02, 84